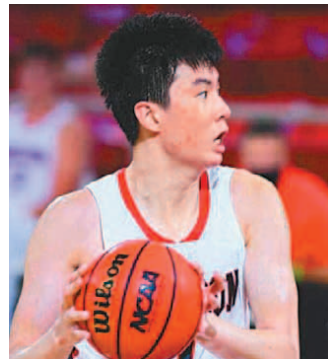


〈데이비스대〉
NCAA 맹활약 이현중
강호 텍사스대 넘어라

개막전 23점·5R·9AS...내일 텍사스대와 맞대결



이현중 사진출처 | 데이비스대 SNS

미국대학농구(NCAA) 1부 무대를 누비고 있는 데이비스대 대학교의 이현중(20·201cm)이 강호 텍사스대를 상대로 시즌 두 번째 경기에 나선다.

이현중은 26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벨크 아레나에서 벌어진 NCAA 남자대학농구

하이포인트대와 2020~2021시즌 개막 경기에서 3점 5개 포함, 23점·5리바운드·9어시스트로 맹활약을 했다. 이현중의 분전으로 데이비스대는 82-7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새 시즌을 기분 좋게 출발했다.

데이비스대 2학년이 된 이현중은 지난 시즌에 비해 역할이 대폭 늘었다. 1학년이었던 지난시즌 그는 28경기에서 평균 8.4점·3.1리바운드를 기록했다. 3점슛은 경기당 3.8개를 시도해 1.4개를 성공(성공률37.7%) 시켰다. 공격 시 패스를 받아 슈트를 던지는 전형적인 슈터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이번 시즌 개막전이었던 하이포인트대와 경기에서는 공격 비중이 지난 시즌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볼 핸들러로 픽앤롤 플레이를 펼치는 빈도가 확실히 증가했다. 9개의 어시스트가 이를 증명한다. 이현중은 올 여름 국내 머무는 동안 픽앤롤 플레이를 갈고 닦았다. 시즌 첫 경기에서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데이비스대의 밥 맥킬립 감독은 이현중의 공격 비중을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비스대는 다음달 1일 텍사스대와 시즌 두 번째 경기를 펼친다. 텍사스대는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케빈 듀란트(브루클린 네츠)를 배출한 농구 명문이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AP통신이 선정한 전미 대학 랭킹에서 19위에 오른 강팀으로 하이포인트대보다는 한 수 위의 전력을 갖췄다. 코트니 램프(188cm·3학년), 맷 폴먼 3세(185cm·4학년) 등 기량 좋은 가드들이 포진해 있다. 이현중에게 텍사스대전이 강팀을 상대로도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정지욱 기자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WKBL “무관중 전환”...KBL은 “구단 자율”

여자농구, 12월 2일부터 무관중
남자농구는 각 구단 판단에 맡겨
10% 입장 땀 방역 등 비용 부담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프로스포츠가 영향을 받고 있다. 남녀프로농구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 바뀔 때마다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여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WKBL(한국 여자농구연맹)은 “다음달 2일 부산 BNK 썬과 부천 하나원큐와의 맞대결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10월 무관중 체제로 개막한 'KB국민은행 Liiv m 여자프로농구 2020~2021'은 A매치 휴식기를 지난 뒤인 22일부터 경기장 수용인원 30% 이내에서 관중 입장을 허용했다. 그러나 10일 만에 다시 무관중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WKBL측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선수단 안전을 고려해 WKBL 경기에 관중 입장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면 무관중 경기 전환을 결정한 WKBL과 달리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구단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는 A매치 휴식기를 보내고 있다. 다음달 2일부터 정규리그를 재개한다.



WKBL은 다음달 2일 BNK썬-하나원큐전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선수단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KBL은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한 만큼 구단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사진은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정규리그 1라운드 우리은행-신한은행전. 스포츠동아 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프로스포츠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 50%, 1.5단계 시 30%, 2단계 시 1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2단계가 적용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를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

으로 1.5단계, 부산·강원·영서·경남·충남·전북 등은 2단계로 상향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남자프로농구 10구단이 연고지로 활용하는 대부분 지역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KBL 관계자는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 지역은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까지 정부에서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있

다. 10% 관중 입장 시 구단 입장에서는 경기장 방역, 경호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10% 관중 입장 시 아예 무관중을 하겠다는 구단도 있는 반면, 상관이 10%라도 관중을 받겠다는 팀도 있다. 구단마다 입장 차이가 있어 각 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박혜진 빠진 우리은행, 상위권 지탱하는 '수비농구'

김정은, '에이스 스토퍼' 역할 톡톡
박지현·김소니아는 리바운드 여왕

KB국민은행 Li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2020~2021' 정규리그에서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8경기에서 5승3패를 기록하며 상위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에이스 박혜진(30·178cm)이 족저근막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은행이 박혜진이 빠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수비와 리바운드를 빼놓을 수 없다. 리그 최고의 외곽 공격수를 잃었지만 김정은(33·180cm), 김소니아(27·176cm), 박지현(22·183cm)이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리그 정상급의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팀 평균 득점은 71.0점(리그 4위)으로 평범하지만, 실점(평균 63.9점·1위)과 리바운드(평균 43.5개·2위)에서는 정상급 기록을 남기고 있다.

우리은행은 김단비(30·인천 신한은행), 강이슬(26·부천 하나원큐) 등 상대 팀 간 판선수의 수비를 박혜진에게 맡겨왔다. 박

혜진이 전력에서 이탈한 뒤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49)은 김정은에게 '에이스 스토퍼' 역할을 주문했다. 김정은은 25일 신한은행전(79-48 승)에서 김단비를 2점으로 묶었다. 28일 하나원큐와의 경기(65-55 승)에서는 2쿼터까지 강이슬에게 2쿼터까지 2점만을 허용하는 등 빼어난 수비력을 과시했다.

리바운드에서는 박지현과 김소니아가 힘을 내고 있다. 박지현은 평균 11.88리바운드(2위), 김소니아는 평균 10.75리바운드(5위)를 기록 중이다. 경기당 10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잡는 선수를 2명 이상 보유한 팀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김정은 박지현 김소니아

우 감독은 “최근 공격 농구가 대세를 이루는데 슈트가 얼마나 터지느냐에 따라 경기마다 어느 정도는 기복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수비는 선수들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공격은 다른 팀에 비해 뛰어나지 않지만, 실점이 적다. 그 덕분에 다른 팀에 비해 기복 없는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수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그레이 상·하세트

블랙 상·하세트

충전재를 베이스로 압축솜, 코팅지, 다이아몬드 킬팅 등 상하 7중 구조의 방한 시스템!

충전재를 베이스로 압축솜, 코팅지, 다이아몬드 킬팅 등 상하 7중 구조의 방한 시스템!

정장·캐주얼·레저·야외활동에 안성맞춤! 100% 고급 천연 충전재가 들어간 고급 패딩 상·하 세트 49,800원

천연 충전재 사용, 상하 7중 구조로 설계한 동계용 상·하 세트

인조 솜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 천연 충전재가 들어간 패딩 상·하 세트는 상하의 모두 천연 충전재를 넣어 특유의 놀라운 보온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천연 충전재를 베이스로 한 상하 7중 다이아몬드 구조는 인체 곡선에 따라 설계된 쪽 뺨은 슬림핏 정장처럼 깔끔한 품격을 제공한다.

센스 있는 디자인으로 정장·캐주얼·레저·야외활동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골덴 소재 포인트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보이는 효과를 준다. 파격적인 할인가 상·하 세트를 49,800원에 한정 판매하고 있다. 제품 불량 즉시 100% 교환, 환불을 보장한다.

사이즈 점퍼 95, 100, 105, 110 / 바지 30, 32, 34, 36, 38
천연 충전재 상하 1벌 ₩4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입금계좌 : 하나은행 418-910028-06904 예금주 : (주)가온자리
전국주문전화 : 1644-3077 ※카드결제 가능